

第22回

全國民俗藝術競演大會出品作

民俗놀이 : 항두계 놀이



日時：1981年 10月 22日～24日

場所：仁川・公設運動場

平 安 南 道

競演大會에 參加하면서

平安南道 知事 朴 仁 珽



國土가 分斷된 지 於焉30餘年이 지나고 西道民俗이 漸次 사라져가는 느낌이 드는 現時點에서 第22回 民俗藝術 競演大會 開催를 契機로 固有의 西道民俗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게된대 對하여 衷心으로 感謝해 마지않습니다. 이번 本道에서 出演하게된 「항두계놀이」에 對해서 簡單히 紹介하면 平安南道 平原, 龍岡, 江西, 安州, 中和郡등 곡창대지

에서 盛行 하였읍니다. 營農過程을 노래와 춤으로서 浮刻한 것인데 이 出品作의 核心이되는 “항두김”은 그 性格이 特殊하고 作業成果가 至大함을 誇示한것입니다. 실로 그 根本精神은 百折不屈하는 鬪志의 발로이며 協同精神과 迅速性은 國力增強의 原動力이라 하겠읍니다.

이“항두계놀이”는 바로 그 固有性을 두드러지게 살리면서 흥겹게 노는 野遊娛樂이라 하겠읍니다. 다만 “계놀이” 대목을 좀더 說明하는 意圖에서 踰다리로 豐年鼓吹 대목과 방아찰는 대목을 並行시켜 農家四時景을 나타냈읍니다. 여러분의 깊은 關心과 理解를 갖이고 鑑賞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平南大同會
會長 朴承煥
外會員 一同

平安南道
名譽市長·郡守一同

平安南道새마을事業會
會長 安炳植
外會員 一同

항두계 놀이 解説

항두라는 말은 “契”라는 平南사투리다. 지금도 禁松契 喪布契등이 있듯이 이 “항두계”는 非常作業을 하기 위하여 組職된 特殊農軍契를 말한다.

그 由來는 旱魃이 계속되다가 비가오거나 其他 不意의 變故로 因하여 김이 밀릴 때로 밀렸을때에 非常動員으로써 解決하는 制度이다.

이것이 비단 農事뿐 아니라 其他 有事時에도 農軍契는 臨機應變하는 自衛手段을 써 왔다. 卽 平時에 血氣旺盛한 壯丁을 뽑아 항두계를 組織하되 계수, 공수, 조수라는 指導役軍이 있게 마련된다.


계수(항두라고도함)는 頭目役을 하고 공수는 集合 休息 給食 連絡 娛樂등 作業上의 時間的인 役을 하고 조수는 박주례(뚝나무로 만든나발)를 불기도 하고 복도치는 激勵役을 하며 무슨 原因으로나 突擊作業이 必要할때면 風雨를 不拘하고 緊急動員을 한다.

그때 계수가 숨을 내리면 조수는 박주례를 불며 洞内를 뛰어다니면서 準備警報를 發하고 다시 불면 契員들은 그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달려가 點檢을 마치고 指示대로 突擊作業을 한다.

이리하여 한곳에 끝나면 또 다른곳으로 轉轉하면서 快速度로 일을 해치우는바 이 항두계의 規律이 대단히 嚴重하며 遲刻을 하거나 落伍하거니 하여 團體行動과 協同精神을 어기면 벌기를 치는 일까지 있으며 언제나 박주례소리만 나면 非常事態로 알고 一致團結하여 難局에 處하였다.

그뿐아니라 老衰者나 불쌍한 사람의 김도 無料로 奉仕作業을 하는 등의 美風도 있었으며 이리하여 堅實한 意志力과 機敏한 行動과 健全한 娛樂이 鼓舞되어 이른바 “猛虎出林”의 北方氣質을 자아냈다.

그리고 言語에 있어서 지금 “기나리”라는 勞作歌의 名稱이나 또는 作業中間의 飮食을 “계누리”라는 것도 契遊(契遊)라는 語源에서 發展된 말이다.

	
平安南道中央道民會 會長 朴 相 燮	
平安南道 市·郡民會長一同	在仁川平安南道民會 會長 李 承 徽 外 會員一同

항두계 놀이 演行 順序說明

科場別	藝目	內容	出演者
第一景 씨앗고르기	演技 (選種作業)	播種期을 當하여 主婦가 選種準備를 서둔다 제석 항아리속의 씨앗을 꺼내여 며느리들과 함께 풍긴다.	김정연·김부경 김진주·김경성 이문주·이강금
第二景 씨뿌리기	무용 (播種)	“기나리” 가락에 흥겨워하면서 씨를 뿌린다.	소저:한명순·이금초 일동:김진주
第三景 모심기	노래 (移秧)	논에 모를 심는다. 역시 기나리 타령을 부른다.	”
第四景 항두김매기	演技 (非常動員)	계수, 공수, 조수가 나타난다 突擊作業을 하기위하여 “박주례를”을 분다. 洞里農軍들이 뛰어나와 點檢을 받는다.	계수:김동은 공수:김경성 조수:이문주 일동
	노래 호미타령 (西道民謠)	계수의 指揮下에 김을 맨다. 느린 호미타령과 자신타령이 나온다. 잠시 작업을 쉬다. 그동안에 愁心歌, 양산도가 나온다.	김정연 외 5명 일동
第五景 계노리	演技 (各種雜技)	일을 마친후 들놀이가 벌어진다. 온갖 숨은 재주가 나오면서 병신난봉가, 사설난봉가, 개타령 등으로 歡喜의 萬萃鏡을 이룬다. 또다시 김은 계속된다.	김부경 외일동
第六景 방아찢기	노래	자진방아를 찢면서 아낙네들이 太平 聖代를 謳歌한다. 돈타령으로 命福도 빌고 財福도 빈다. 내중에는 觀客에게 無病長壽하라고 명복떡을 던져준다.	일동

출연자 명단

김정연	이금초	김부경	이은주	이강금
김영애	한명순	김경성	윤재희	장기석
김진주	김동은	이진관	한창엽	김세호
이대욱	김동현	김동철	김동률	김남철
이병열	조문빈	이도인	황영섭	김승엽
김근일	박일영	전시대	김성철	이왕렬
갈소미	여인성	김원배		